

## 브루스 월트키 박사, 시편, 강의 21

### © 2024 브루스 월트케(Bruce Waltke)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Bruce Waltke 박사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1, 전례적 접근 방식, 대관식 시편, 시편 2편과 110편입니다.

우리는 공인된 방법을 살펴보고 시편을 해석하는 공인된 방법이나 접근법을 살펴본 다음 주어진 시편에 초점을 맞추고 확대하여 더 자세히 처리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접근으로 시편 4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찬양의 찬송으로 시편 100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찬송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가의 시편에서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메시아적인 시편을 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편은 신약성경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전례적 접근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저는 대관식 시편 두 편을 들고 싶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듯이 그 왕도 즉위하는 시편이 바로 그 시편입니다. 이 두 시편, 즉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은 신약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귀하의 노트 269페이지에는 서론을 통해 시편 번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시편의 배경이 아마도 성전인 시온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번역하면, 왜 열방이 백성의 음모를 헛되이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뭉쳐 나 자신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느니라.

그들의 사슬을 끊고 족쇄를 벗어 버리자.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 비웃으시고, 군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내가 법령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오늘 나는 너를 낳는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에게 네 유업을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산산조각나게 하라.

그러므로 왕들은 지혜를 얻고 땅의 통치자들은 경고를 받으십시오. 두려움으로 나 자신(I Am)을 섬기고 떨림으로 그의 통치를 찬양하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화를 내서 너희가 가는 길에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의 진노가 곧 타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 피신하는 모든 사람은 얼마나 복되고 보상을 받는가! 12절로 구성된 시편은 각 연에 3절씩 총 4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은 다른 화자로 표시됩니다. 첫 번째 스탠자에서 우리는 열방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3절에서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시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니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의 사슬을 끊고 족쇄를 벗어 버리자. 그런 다음 우리는 이교 왕들의 지상 궁정에서 옮겨져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 4절부터 6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늘 궁정으로 들려 올려집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이를 보고 6절에서 그 말씀을 듣나니 나는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느니라. 다음 세 구절, 7절부터 9절까지에서 아마도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언약의 규정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암송합니다. 마지막 연에서 시편 기자는 땅의 왕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대적인 왕들이 말하는 개요를 얻었고 우리는 그들의 왕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I Am과 그의 왕의 통치를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두 번째 연인 4연부터 6연에서는 I Am 자신이 말하고 자신의 왕을 시온 산에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세 번째 스탠자에서 왕은 말하고 땅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는 법령을 낭송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 적대적인 왕들에게 I Am과 그의 왕에게 복종하라고 권고합니다. 시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리라 하였으니 시편의 배경이 대관식 전례임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왕이 말하기를, 내가 명령을 내리리니, 이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함이니라. 오늘 나는 너를 낳는다. 오늘은 아마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시온에 왕으로 즉위하여 입양을 통해 왕,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의 대관식의 날일 것입니다.

또 다른 설정은 책 자체의 설정입니다. 책에 있는 독일어 종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시편 소개의 일부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서문입니다. 위 첨자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래 첨자가 없으며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관련된 많은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얼마나 큰 보상을 받는가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에게 피신하는 모든 사람이 얼마나 상을 받고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이탤릭체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은 축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시편 2편은 축복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명상하다라는 뜻의 동사 hagah 도 주목하세요.

그리고 한 면으로 번역하자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2장 1절의 왕들은 묵상하고 있으며, 음모를 번역하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전복시키는 것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둘 다 조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1절에는 악인들이 의인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2편에는 악인을 조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길과 멸망의 은유는 두 시편 모두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12b절에는 그가 진노하사 너희가 너희 길로 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편집자는 아마도 이 두 시편을 책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그의 청원과 찬양과 멸망에 관한 시집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왕과 왕국 내의 개인으로서 시편을 해석하도록 준비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읽는 방식에는 이중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왕에게 적용 가능하며, 왕과의 관계에 있는 개인으로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이 그리스도와 그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대관식을 통해 성취된다는 정경 자체의 설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왕 너머를 언급하는 것은 시편 2편에서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땅 끝까지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최선을 다해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그 통치권을 땅 끝까지 확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성서는 이 시편을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사실, 왕들이 역사적 왕을 거부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앉은뱅이를 고쳤을 때, 그는 기뻐하며 떠났고, 그 일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야 할 아름다운 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도부는 베드로와 요한과 교회를 다시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성령으로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시편을 인용했다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백성들의 음모와 헛된 일에 열국이 분노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며 관원들이 서로 뭉쳐 여호와와 그 기쁨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그리고 그들은 논평하는데, 여기에 종교 통치자들이 빌라도, 로마, 지상의 사람들과 함께 취급된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고임 족속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레 아임 족속은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모두 한데 묶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항하는 음모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이 성에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음모를 꾸미나이다. 그들은 당신의 힘과 의지가 일어나야 한다고 미리 결정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즉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과 그의 교회를 거부하는 일임을 인정합니다. 초기 개신교 신학자 아미로트는 왼쪽 눈은 역사적 왕을 바라보고 오른쪽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왼쪽 눈은 역사적 왕을 바라보고 오른쪽 눈은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해석할 때 항상 이 역사와 그것을 가리키는 모형론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 계속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을 해설하고 번역본을 손에 쥐도록 합시다.

그리고 적대적인 왕들이 I Am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것에 관한 첫 번째 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 율법을 버리려는 그들의 음모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즉시 말합니다. 2절에서 그는 반역이 보편적임을 알려줍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세 번째는 그의 통치를 버리려는 그들의 동기입니다. 우선, 그들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왕을 대적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음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가 말할 때, 왜 나라들이 분노하는가? 그는 진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1, 2, 3, 4입니다. 순전히 수사적입니다.

그는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그러나 이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이것이 삶의 방식이며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주장합니다. 나라들과 백성들은 원래 이방인들을 가리켰습니다. 아마도 시편에 나오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새로운 왕이 생기면 열방이 새로운 왕을 시험하고 그의 통치를 전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후계자들의 대관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매 순간마다 나라들이 그분의 통치와 능력을 시험하고 그분의 구원의 통치권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음모를 꾸미는데, 이는 그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장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우리를 이교도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죽이고 그의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하나의 세계 정부와 세속 국가, 세속적인 세계 정부, 원하신다면 바벨탑 재건을 목표로 삼고 종교를 억압하고 양심을 억압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설 억제. 기계적으로 우리 행정부가 우리를 하나의 세계 정부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정부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모두 빼앗고 언론의 자유, 증오심 표현,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부를 것입니다. 관념론. 그들은 하나님을 없애고 싶고, 교회를 없애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증언의 자유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의 폭정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가 하나의 세계 정부를 향해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El Amar, El Amarna 서신이 있습니다.

Tukhannamun ) 통치 기간 동안 이집트에 있던 유적지로 , 여기서 우리는 사소한 왕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우리는 소왕들이 애굽 왕에게 반역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소왕들이 이집트 수잔과 서로 대항하여 음모와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긴장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악에 대한 그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의 보편적인 반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에 대해 말합니다(2절). 땅의 왕들과 그들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의 모든 왕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대조되기 때문에 땅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입장을 취하고 함께 뭉쳐 그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방법을 계획합니다.

그들의 반역은 언약의 하나님, 십계명의 하나님인 나 자신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에서 십계명을 없애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세속 국가를 세우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그들이 다가올 심판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I Am에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며, 역사 속에 자신을 알리는 영원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악에 대한 승리와 계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의 기름부음받은 자를 반대하는 말은 환유, 즉 보조 환유로 알려진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기름부음받은 자는 왕입니다.

구약성서에는 기름부음을 받은 세 명의 신성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물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왕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기름부음에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를 지명할 것이다. 진흙항아리나 솥양의 뿔을 가지고요.

솥양의 뿔을 가져가자. 솥양의 뿔은 끝부분이 커서 꼭대기의 머리 부분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끝을 파서 솥양의 뿔에 향유를 채울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왕이 지명한 사람에게 가서 그 향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왕에게 바르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신부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 기름부음, 그 기름으로 덮는 것, 그것은 왕의 은총, 낱말은 권위의 인장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를 차별화시켰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인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 인장이 있으면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왕의 캐시입니다.

왕의 확인입니다.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왕의 정당성입니다. 예언적인 기름부음이 없다면 당신은 합법적인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도니야가 스스로 왕을 세웠을 때 그 시대의 모세 다얀과 같은 대장군 요압이 있었지만 가장 큰 장군은 요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또한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고 갔던 아비아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도니야를 지지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언적 명칭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선지자의 칭호인 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베기 야나 베가, 호세아 처럼 스스로 왕위에 오른 왕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확실한 검증 없이 스스로를 설정했으며 선지자들은 그들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혀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좌를 노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왕에게는 그를 구별하는 기름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름부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 모든 가구, 제사장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부음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산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하여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름부음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다윗은 그의 소유에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방식대로 처리하셔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죽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왕에게 기름을 부으신 모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실 것을 신뢰하고 문제를 자기 손에 맡기지 않을 것인지를 시험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름부음은 왕을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부음받은 그리스도를 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주먹을 하늘로 가져가서 그리스도의 코를 찧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의 몸을 박해했습니다.

나는 그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글썬요, 이것이고 기름부음에 대한 세 번째 개념은 그가 이제 왕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왕에게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어가는 한, 나는 그리스도께서 세레 요한의 비밀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세레 요한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들 가운데 참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니 너희를 위하여 요한이 선지자인 줄 너희가 알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그리고 그는 나에게 기름을 부어 말했습니다. 그는 샌들 끈 등을 풀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사실은 그가 자신의 생명을 넘겨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느 누구도 그를 실제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글썄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고, 그는 기름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들과 성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귀신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은 괴로운 속박입니다. 그것은 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플롯의 첫 번째 연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보편적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목에 걸고 있는 멍에와 같든, 아니면 제가 여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간에 그것을 밧줄과 속박의 괴로운 속박으로 봅니다.

이 특별한 경우, 승자는 피해자의 혀에 구멍을 뚫고 밧줄을 넣어 혀를 잡아당겨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두 번째 연으로 돌아가서 나는 스스로(I Am) 그의 왕을 그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비웃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샬덴프로이데에 관해 이야기할 때, 신은 웃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는 자기 왕을 자기 왕좌에 앉히기로 결심했습니다. 4절부터 하늘에 보좌에 계신 이가 그들을 비웃으시느니라. 주권자는 그들을 비웃습니다.

나는 시인이 두 번째 연을 내가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시다로 시작하여 나의 거룩한 산에 기름부음 받은 왕으로 끝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위쪽 틀은 온 땅에 대한 그분의 우주적 초월성을 말하며, 아래쪽 틀은 온 땅 위에 자신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카리스마 넘치는 왕을 통한 임박한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분은 다시 지구인과 달리 초월적인 주권자의 자율성입니다.

그리고 그는 웃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웃음 아이디어는 정의의 웃음입니다.

그것은 정의의 웃음, 폭정에 대한 정의의 승리, 악에 대한 정의의 웃음, 폭군이 패배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웃음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웃으실 때 두 번 더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3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입으로는 날카로운 말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시편 37편은 악인이 의인을 꾀하고 이를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는 악인을 비웃는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의 날이 다가옴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의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는 악인의 멸망을 비웃으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불의에 대한 승리의 웃음이고, 불의에 대한 정의의 압제입니다. 그리고 시편 59편을 보면 그들은 이빨을 가지고 소리치고 있으며 입술에는

날카로운 칼이 있고 누가 우리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경건 하고 불경건하고 기본적으로 무신론자인데 당신은 그들을 비웃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모든 나라를 분열시키십니다. 웃음에는 거의 코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걸리버와 걸리버가 릴리푸트 섬에 도착했을 때의 여행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배가 부서진 것은 새벽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바다에 있지만 릴리푸트 섬과 가깝습니다.

그는 해변으로 올라가 풀이 무성한 마당에서 깊은 잠에 빠진다. 그는 아침 10시에 잠에서 깨어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내려다보며 옆구리로 사다리가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의 긴 머리는 땅에 꽂혀 있다.

그의 팔은 각 손가락 주위에 작은 끈으로 뿔어 있으며 모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사다리를 보고 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 릴리퍼트인들이 오고 그들은 그들의 왕이 이끄는 것입니다. 릴리푸트인의 크기는 그의 새끼손가락 정도이고, 왕의 크기는 손톱 하나 더 큼니다.

그래서 이 소인국의 왕은 걸리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리버는 '자, 그냥 그렇게 부수면 이야기가 끝날 것 같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게임과 함께 플레이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가 악을 이기시고 정의와 정의가 승리하고 패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거의 희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어 단어가 Schadenfreude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다른 사람의 파괴를 비웃는다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의 샤펜프로이데(Schadenfreude)에 대해 조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상에 대한 기쁨,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보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감성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행에서 파생된 이스라엘의 기쁨, 즉 독일인들이 샤펜프로이데(Schadenfreude)라고 부르는 손상된 기쁨(이스라엘의 바다의 노래와 다윗의 시편에 표현된 것처럼)을 가치 없는 감정으로 간주합니다. 1852년 더블린의 트렌치(Trench) 대주교는 단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어떤 언어든 다른 사람의 재난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손해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샤펜프로이데(Schadenfreude)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인 쇼펜하우어조차도 이 일이 너무 끔찍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쾌락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악의적인 쾌락은 불법이며 죄를 짓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샤펜프로이데는 불의가 찬양될 때 위험한 감정이지만, 정의가 실현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샤펜프로이데는 불의를 찬양할 때 위험한 감정이지만, 정의가 실현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의 경우와 잠언 1장 20절의 성문에서의 지혜로운 여인의 설교에서처럼 그녀는 어리석은 자들의 멸망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버지니아대학교 종교학 교수인 존 포트만(John Portman)은 자신의 최근 저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When Bad Things Happen to Others)'에서 정의가 미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법자가 처형되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정의가 미덕이라면, 정의의 승리에 대한 기쁨은 전적으로 적절하고 미덕입니다. 그분의 기쁨이 법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입니다.

샤펜프로이데는 정의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멸망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승리와 관련하여 샤펜프로이데가 미덕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은 악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악인의 멸망을 비웃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초림 때는 정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그의 취임 연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권자인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고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암송하고 그것이 자기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나사렛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은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읽으려고 일어나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굴러 보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쓴 곳을 찾았습니다. 나를 보내사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지정된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인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해를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종에게 돌려주고 앉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복수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에서 이 메모를 얻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와 구원의 때이고, 복수와 죽음의 때이며, 정의의 웃음은 여전히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까? 나는 그 정도면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아주,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John 도 John 3에 있나요? 아니요, John 3에서는요. 응.

그것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구원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은 그렇겠지만, 그때는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달라. 나는 John Six에서 다시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은 생각이예요. 오늘날 교회가 악인들이 패배할 때 웃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에게 예수님은 산상수훈과 모순되는 말씀이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올해 캔터베리가 마침내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성공회를 침묵시켰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실제로 성공회 친교에 투표하거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한 인용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한 수준에서 나는 승리를 기뻐하지만 그 사악한 주교들에 대한 승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정말로 믿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들은 집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이 패배했을 때 기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샬덴프로이데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나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루이스가 매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에서 매우 무시되는 교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할 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저는 루이스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옳고 그름에 대해 더 확고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교 문헌에는 이러한 분노의 표현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분노의 부재, 특히 우리가 분노라고 부르는 종류의 분노는 제 생각에는 가장 놀라운 증상이 될 수 있으며, 죄에 대한 분노의 부재입니다. 나는 우리 사회에 분노가 없는 것을 본다. 내 생각에 그것은 상대성이론, 즉 절대성의 상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 가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하나님도 없고 기준도 없이 더 이상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도덕적으로 분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놀라운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루이스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는 만약 유대인들과 내가 구약의 성도들을 유대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대착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은 우리가 정의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그의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교도들보다 더 심하게 저주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옳고 그름을 더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욕설을 보면 그들은 대개 화를 내는데, 이는 단지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 행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희생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그들이 행하는 만큼 반드시 미워해야 하고, 그러므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의로우신 주님에 대한 생각은 비록 그 배경에만 있을지라도 얼마나 끔찍하게 지연시키고, 심판하고, 복수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인물을 풀을 먹고 배변하는 모든 황소로 바꾸자 그분은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숭배합니다.

믿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경우, 예수께서 화를 내셨다는 말을 그렇게 많은 말로 한 적은 없지만,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분노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빌, 여기서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리스어 *embrima*는 오보 마이, 원래는 *snorted*라는 뜻인 것 같아요.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것은 예수님,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그분은 예루살렘과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실 때 그것이 자신의 죽음이 될 것임을 아시는 이 상황에 분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그 사람과 함께 죽도록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에 응답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예수님이 화가 났고 본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는 유일한 실제 시간은 제자들이 어린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화를 냈다면 그는 죄와 죄가 어떻게 그의 선한 창조물을 파괴했는지에 대해 화를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orginzo가 실제로 예수님을 사용한 유일한 시간입니다. 즉, 우리는 성전 정화와 같이 예수님을 화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코골이입니다.

그렇게 번역됐네요. 하지만 깊은 감동은 분노의 움직임 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단어를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 단어를 읽을 때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분노와 불만의 표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그가 끈으로 채찍을 만들며 돈 바꾸는 자들과 가축들을 성전에서 쫓아내는 것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동전을 흩어버리고 상을 엮어 버립니다. 그것은 꽤 폭력적인 행동, 거부입니다. 열성적이라는 점에서 폭력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노한다는 점에서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열심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응.

아버지 집에 대한 열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토론이네요. 내 생각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은 놀랍도록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했듯이 이러한 표현은 악에 반대됩니다. 응.

응.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

교회에 관한 한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를 내는 것이 도덕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치약을 제대로 짜지 않아서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것. 당신은 어떤 상황에 화가 났을 뿐입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 때문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제력을 잃으면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패배하고, 도중에 경솔해집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글쎄요, 한 소녀가 성추행을 당하는 상황을 보면, 그 소녀가 분노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신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내 생각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적어도 도덕적 분노를 표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누구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항상 서로와 모든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즉, 죄가 있다고 해서 당신이 여전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분노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웃음입니다. 그것은 정의와 승리의 웃음입니다. 그것은 매우 타당하고 필요한 그의 도덕적 분노입니다.

셋째, 시온에 왕을 세우십니다. 히브리어 본문의 '나'는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말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행위 이론이라고 불리는 장관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남자와 아내로 선언하고 그 말이 그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즉위시킨다는 그의 말은 사실상 결혼 선언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시온, 음, 우리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 성의 서쪽에 있는 티로피아 계곡과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계곡 사이의 언덕을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현재 바위 돔이 있는 성전산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무적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정복하기 전의 이름과 용도는 시온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결코 패할 수 없는 무적의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레빈슨의 말처럼 시온은 역사 안에 있지만 역사와 별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사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거룩합니다. 내 생각에 그리스도께서 시온에 즉위하신 일은 그분의 승천과 동시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나는 신약성서에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즉위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신약성서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인 판타로 인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시온 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전체 이론은 전체 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영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면, 예수께서 땅에 다시 오셔서 땅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개념을 확립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어떤 설명이든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약성서에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 이스라엘이 정치적 실체로 다시 모였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신약성경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으로마서 11장에서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 번째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연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명확한 계시는 없습니다. 둘째, 요한복음 4장은 땅에 속한 것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 안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문제를 바로잡았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였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합니까? 랍비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을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면 우리는 형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들 사이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의 제10계명은 에벨 신전과 신명기 27장 등에서 제단을 쌓을 때 나오는 재료를 줍는 것입니다. 제10계명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문제에 대해 바로 이해합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곧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 지금의 나블루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온다고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로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문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약속하신 성령께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부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제가 신약성경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의 교회를 세우시는 곳은 하늘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인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영으로 행하거니와 너희는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천만천천사의 기쁨의 모임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에 나아오셨느니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말씀을 말하는 뿌린 피 앞에 나아왔느니라. 아벨의 피는 복수를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왕을 즉위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강림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제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은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며, 그분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세 번째 연에서 왕은 그에게 땅을 다스릴 권리를 주는 법령을 낭송합니다. 7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8절에서는 땅과 그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열방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말할 때 나는 법령을 선포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왕이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취를 발견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나는 그것을 암송할 것입니다. 그것은 집단, 결의입니다. 나는 그 법령을 암송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왕임을 인정함으로써 거절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꺼이 왕이 되고자 하며 그로부터 도망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법령을 암송하기로 결심합니다. 열방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령을 낭송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령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법령이고 규정입니다. 법령은 언약의 규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규정은 다윗 언약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 날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자손 곧 솔로몬을 세워 너를 이어 네 혈육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는 그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악을 행하면 내가 사람이 휘두르는 채찍과 사람의 손으로 채찍질함으로 그를 징벌하리라.

그리고 그 조서는 하나님의 아들 즉 즉위식을 한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위한 대관식 예식입니다. 왕의 경우,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양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자 이상이지만 왕은 양자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입양으로 받아요. 그는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연적인 생물학적 기원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시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자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에게 신성한 피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양하셨거나 그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의 가족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말하면 그는 그들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혈통이 잘 알려진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나는 그 예가 룻이 육체적으로 낳은 보아스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보아스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맡겼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고 양자로 삼게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어머니가 되었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노년기에 그녀를 보살펴 줄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네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람인 누가는 자신의 혈통을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그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 가계의 모든 왕은 입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징계하시고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 시편 2편의 뜻임을 나는 안다. 오늘 나는 당신을 낳았습니다. 저는 다윗의 자손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이 그의 대관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누가복음의 신학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모두는 천사가 성령이 그녀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알고 있으며 그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신학이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항상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요한의 높은 기독교론이다. 그가 승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낮아지기 전의 영광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dana엘이 말한 것을 보면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기 전에도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부분입니다. 나dana엘은 이스라엘의 상징인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요한 신학에서는 그 의미가 최대한 구체화되었습니다.

나는 나dana엘이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신학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루스 씨, 입양 사업에 관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라 네 아들이 마리아와 요한에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입양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비슷한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응, 아주 비슷해. 왕과 땅의 관계는 자신이 창조한 것을 누구에게나 원하는 사람에게 줄 권리가 있는 땅의 창조자에게서 받은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을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이 왕의 기업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언약적 약속에 의한 아들이자 유산에 의한 땅의 상속자일지라도, 왕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가 있지만 우리는 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기도로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중에 있으며, 땅을 창조하여 땅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고 나는 그것을 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겠다고 번역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나라들은 그들에게 반역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구입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또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땅끝은 아브라함 언약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미래의 왕과 시간과 공간에서의 우주 통치를 기대하는 시편 72편의 끝입니다.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왕이 오셔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의 부족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적들이 먼지를 핥게 하소서. 다시스와 먼 해안의 왕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스바와 스바의 왕들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모든 왕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나라가 그를 섬기게 하소서. 시편 72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취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전에 권세를 잃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악한 시대에 그에게 통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시대에 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언어로 그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마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분명히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받은 영은 너희를 다시 종으로 삼아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 여러분을 아들의 명분으로 입양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힘입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자녀라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래서 매일 예배에서 일레인과 저는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팔을 내밀어 모든 사람을 당신의 구원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소서. 마지막으로, 왕과 땅의 관계는 그가 통치할 것이며 재림 때에 철장으로 왕을 깨뜨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break라는 단어에 대한 텍스트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Terroim 으로 발음됩니다 .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로 TR의 자음을 주었고, 철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M, Terroim을 얻었습니다 .

그리고 문제는 이 단어가 깨지다를 의미하는 어근 raah 에서 유래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양치기를 의미하는 어근 raah 에서 유래한 것인가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텍스트상의 문제입니다. 자음이 똑같거든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발성하느냐이다. 그리고 저는 break가 원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막대로 그것을 깨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쇠막대를 가지고 그들을 목양할 것이며 그것이 가능합니다. 양치기 일이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팡이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당신은 지팡이로 양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사점은 당신이 그들을 깨뜨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나은 유사점은 휴식입니다. 그리고 raah( 부수다) 라는 단어는 아람어 단어인데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태양에 입맞춤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아람어가 있습니다. 태양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바와 같은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람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드가 나에게 시사하는 바는 원래는 쇠막대를 부수고 그것들을 부숴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림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세운 교회, 바로 이 교회가 281쪽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기도로 가정과 결혼 생활을 구했지만 마귀가 자기 집에서 승리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영화 전쟁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 나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경고합니다. 우선 그들은 시편 기자와의 관계에 복종하고, 다음에는 I Am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과의 관계에 복종합니다. 시편 기자와의 관계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 왕은 땅의 상속자이며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연에 비추어 현명하게 그의 통치에 복종하십시오. 거기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I Am에 대한 그분의 관계는 I Am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I Am이라는 단어에 대해 토론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인 나에게 복종하거나 종속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필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주인을 섬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정 아래로 들어가고 사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필멸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 전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며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께 복종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에 관한 한 그들은 아들을 경배해야 합니다. 아들 에게 입맞추는 것은 그분께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282쪽에는 예후가 앗수르 왕의 땅에 입맞추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구원이고 그것이 그분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것이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Bruce Waltke 박사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1, 전례적 접근, 대관식 시편, 시편 2편과 110편입니다.